

2016년 12월 20일, 구좌읍 종달리 종달리마을회관, 송정희 조사.
 김보배(여, 1939년생, 구좌읍 종달리)

[제보자] 옛날에 이제 봉사허곡 버버리 허곡 두 내우간 행 산 거라. 이, 계난 이제 살다가
 보니깐 동네 불이 난 거라. 불이 나난 이젠, 할망 이제 하르방은 이제 몰레기고,
 할망은 버버리라. 버버리니깐 이제 할망이 동네 불났다 허난 할망 이젠 하르방
 이젠 그 불차지 강 폭을 폭 심으니깐

“아 불났구나.”

또 이제 흐쓸 잇이난, 이제 또 그 하르방 7슴 강 할망이 폭 심으난

“스데만 남았구나.” (웃음)

경 행 할망 하르방이 뭐 헛단다.

- 핵심어 : 봉사, 버버리, 할망, 하르방, 불